

아시아의 상호이해와 미디어의 역할

- 한국 신문의 국제 . 외신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Kim Bok-su
(김복수, 한국학중앙연구원)

1. 서론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 여러 측면에서 이전 사회와 다른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실제로 겪고 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20세기 말 특히, 21세기 전개와 더불어 이론적 . 실제적 측면에서 주요한 의제(agenda)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만하다.

혹자는 세계사적 조류가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 중심으로, 21세기에는 환태평양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중심의 단일 세계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다각화 전략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을 그 대안 세력의 하나로 손꼽기도 하고, 서구사상의 한계와 함께 아시아적 가치와 생태학이 새로운 21세기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21세기에 있어서 아시아,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문제와 미디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세계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론에서는 한국 신문의 국제 . 외신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맥루한의 주장처럼 세계는 이미 하나의 지구촌이 된지 오래다. 국제 뉴스는 국경을 초월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다. 언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뉴스(국제 . 외신 뉴스 포함)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국제 . 외신 뉴스를 접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사물과 사건에 대한 이미지 또는 인식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사회를 글로벌 정보사회라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21세기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아시아 각국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영향과 역할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디어의 국가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정보사회에 살고 있으며, 모든 뉴스는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기술결정론의 영향을 받은 미디어 결정론자들의 입장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 미디어가 사회 변화의 중심적 추동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세계화와 미디어의 역할 -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과 미디어 결정론(Media Determinism)을 중심으로

1)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세계화와 미디어의 역할

세계화와 미디어 역할의 문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분야로서 소위 국제 커뮤니케이션(International Communication), 문화 횡단 커뮤니케이션(Cross-cultural Communication) 등의 이름으로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분야는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진전된 전(全) 지구촌 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가 흐르게 됨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중심 주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 정보 흐름의 불균형 문제와 이로부터 비롯된 문화종속과 문화제국주의 문제, 일방적으로 생산된 편향 보도와 그에 영향을 받은 인식의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된 대표적 예로는 UNESCO 152개 회원국이 1980년 10월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맥브라이드 보고서(MacBride Report)가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정보의 균형 있는 흐름(balanced flow of information)을 주장하면서 제1세계 통신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흐르고 있는 정보 불균형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3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통신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인지 일관성 이론(cognitive consistency theory),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 선택적 지각 이론(selective perception theory), 인지 유형화 이론(cognitive categorization theory), 귀속 이론(attribution theory), 기대 위배 이론(expectancy violation theory), 우려와 불확실성 관리 이론(anxiety & uncertainty management theory), 문화 적응 이론(cultural adaptation theory ; 거부단계, 방어단계, 최소화단계, 수용단계, 적응단계, 통합단계), 의사 결정 이론(decision-making theory), 대화 억제 이론, 커뮤니케이션 조절 이론(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 문화 인내 이론(cultural tolerance theory)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논지는 우리가 갖게 되는 세계 여러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주로 형성되며 이러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평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정보에 대한 자신의 선택적 지각 등등이 우리들의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